

중소수출기업의 전사적 리스크관리를 위한 수출보험의 역할에 관한 연구

장 동 한*

유 광 현**

I. 서 론

II. 무역리스크와 수출보험의 현황

III. ERM을 활용한 무역리스크 관리의 필요성

IV. K-sure를 통한 중소기업의 무역리스크 관리방안

V. 결 론

주제어 : 무역리스크, 수출보험, 전사적 리스크관리(ERM)

I. 서 론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 2001년 1504억 달러에 불과했지만 최근의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도 가파른 성장세¹⁾를 보이며 2010년에는 사상 최대실적인 4,664

* 건국대학교 상경대학 국제무역학과 교수, 주저자

** 건국대학교 상경대학 국제무역학과 강의교수, 교신저자

1)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교역 및 수출 추이(단위: 억불)

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큰 폭으로 증가하여, 현재 추세를 감안할 때 향후 2~3년 내 '수출 1조 달러, 세계 5강'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²⁾

또한 국가경제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알 수 있는 무역의존도는 1990년 51.1%에서 2008년 92.3%를 최고로 지난 3년간 80%를 상회하고 있어 2010년에는 약 85%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20%대인 일본과 50%대인 중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서 대외경제 의존도가 높다는 의미와 함께 우리 경제에서 무역활동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편 환율 및 원자재가격 변화, 선진국 및 신흥국의 수요 변화와 송금방식 증가와 같은 무역방식의 변화 등 급변하는 국제무역환경에 의해 수출기업의 환리스크 증대로 인한 KIKO 사태 및 대금결제방식 변화로 인한 대금회수의 불안전성 증가 등 무역리스크는 이전에 비해 상당히 복잡해지면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무역리스크의 증가에 따라 무역기업의 리스크관리가 절실한 시점이며 대기업의 경우 자체적으로 ERM과 같은 여러 가지 리스크관리방법을 통해 대응³⁾을 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무역리스크 인식 정도가 낮으며, 리스크관리 전문성 또한 낮기 때문에 무역리스크관리가 사실상 자체 능력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보험을 활용하는 적극적인 리스크관리가 필요하며, 이에 더해 취약한 중소기업의 리스크관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K-sure(한국무역보험공사, 이하 K-sure)를 중심으로 하는 무역절차별 리스크의 통합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정책적으로도 현재 수출보험은 WTO에서 허용하는 보조금에 속하기 때문에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매우 유용한 수단이다.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교역액	2,915	3,146	3,726	4,783	5,457	6,348	7,283	8,573	6,866	8,916
(순위)	(13)	(13)	(12)	(12)	(12)	(12)	(11)	(11)	(10)	(9)
수출액	1,504	1,625	1,938	2,538	2,844	3,255	3,715	4,220	3,635	4,664
(순위)	(13)	(12)	(12)	(12)	(12)	(11)	(11)	(12)	(9)	(7)

2) 관세청, 2010년 수출입 동향, 2011. 1.

3) 실제로 대기업의 경우 자체적인 환리스크관리를 통해 KIKO 사태에서 피해가 적었으며, 이전의 종합상사 기업에서는 전사적리스크관리 현재 실시 중임.

따라서 본고에서는 무역리스크 절감 방안으로서 현재 세계적인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는 전사적 리스크관리(ERM)를 제안하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낮은 리스크 인식과 전문성 결여로 인해 사실상 자체적인 전사적 리스크관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K-sure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의 무역리스크 관리방안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Ⅱ. 무역리스크와 수출보험의 현황

1. 무역거래상의 리스크와 리스크관리

무역은 서로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상인(무역업자)간에 행해지는 물품의 매매로서 매도인은 특정물품을 외국에 있는 매수인에게 인도하고, 매수인은 이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내 상거래에 비하여 상품의 이동거리가 멀고 또 매매당사자는 언어, 관습, 법률, 화폐제도 등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무역거래에 따른 리스크는 국내 상거래에 비하여 훨씬 크고 복잡다양하다. 무역거래상의 제반 리스크와 대표적인 관리방안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운송리스크(transportation risk) - 적하보험

운송리스크는 거래상품이 수출자를 떠나 수입업자에게 인도될 때까지의 수송도중에 해난이나 기타 사고와 관련된 리스크로써 민간보험에서 취급하는 적하보험을 통해서 부보할 수 있다.

2) 신용리스크(credit risk) - 신용조회, 신용장 활용, 수출보험

신용리스크 수입업자의 파산이나 일방적인 계약파기 등으로 인한 수출불능 및 대금회수불능, 수입업자의 재정상태 악화로 인한 대금지급지연 등 수입업자가 당연히 이행하여야 할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태만히 할 수 있는 리스크이다. 신용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방법에는 신용조회, 신용장, 수출보험을 이용하는 것이다. 계약이전에 철저한 신용조사와 대금결제방법으로서 신용장 활용을 통해서 기업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또한 신용리스크는 민영보험에서

대처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국에서는 수출촉진의 목적으로 신용리스크를 수출보험을 통해 리스크를 부보하고 있다.

3) 비상리스크(emergency or political risk) - 수출보험

비상리스크란 전쟁, 내란, 천재지변, 수입국에서의 수입금지 또는 수입제한, 환거래의 제한 또는 금지조치 등과 같이 계약당사자에게 책임 지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또는 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리스크를 말한다. 비상리스크는 일정국가 또는 일정지역의 거래 전체에 손해가 발생하므로 대규모의 재해가 되기 쉽고 통계적으로 파악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러한 종류의 위험은 민영보험에서 부보하지 않는다. 이에 원활한 무역, 특히 수출촉진을 위해 각국에서는 국가의 주도하에 수출보험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4) 환리스크(foreign exchange risk) - FRM, 수출보험(환변동보험)

환리스크란 환율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말한다. 이러한 환리스크의 관리는 수출기업들이 원화 강세에 따른 수익성 악화에 대비하여 원가 절감과 비가격 경쟁력 확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손익분기점 환율을 낮추고 일시적으로 약세가 불가피한 통화의 결제 비중을 축소시키는 것이다. 그 밖의 방법으로는 기업 단독으로 리스크를 감소할 수 있는 방법(내부적 관리방법)과 기업외부의 금융 시장을 이용하는 방법(외부적 관리방법)이 있다. 내부적 관리방법에는 매칭(matching), 리딩(leading)과 래깅(lagging), 상계(netting), 자산 및 부채관리방법(asset liability management) 등이 있으며, 외부적 관리방법으로는 은행과 선물환계약을 체결하거나 선물거래소의 통화선물 또는 통화옵션, 통화스왑 등을 이용하는 것이 있다. 또한 수출기업에 한해 수출보험의 환변동보험 가입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

5) 경영리스크(management risk)

경영리스크란 기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로서 판매예측이 맞지 않거나 또는 경영상의 예측이 어긋남으로써 발생하는 리스크로서 기업자체의 리스크관리가 필요하다.

6) 배상책임리스크(liability risk)

기업 활동 과정에서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에 따른 리스크를 말한다. 소비자 권리의식의 향상과 함께 생산물 제조업자뿐만 아니라 공급자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이 체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다. 무역업자가 상품의 수출 시 생산물 배상책임에 대한 이해와 대책이 없이는 손해배상 청구에 따라 큰 손실을 입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헤치하기 위해서 제조물책임보험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2. 무역보험의 정의 및 활용도

1) 수출보험제도의 개념 및 기능⁴⁾

수출보험제도는 수출거래에 수반되는 여러가지 위험 가운데서 민영보험회사가 부보하는 해상보험과 같은 통상의 보험으로는 구제하기 곤란한 위험, 즉 수입자의 계약파기, 파산, 대금지급지연 또는 거절 등의 신용위험(Commercial Risk)과 수입국에서의 전쟁, 내란, 또는 환거래 제한 등의 비상위험(Political Risk)으로 인하여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금을 대출해준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수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비영리 정책보험이다.

이러한 수출보험의 주된 기능으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수입국에서 발생하는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 등으로 인하여 수출불능이 되거나 수출상품의 대금회수가 어렵게 되어 수출자나 생산자 등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수출거래의 불안정성을 제거할 수 있다.

둘째, 수출대금 미회수위험을 담보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수출 금융을 공여하게 하는 금융보완적 기능을 가진다. 즉 수출금융에서는 수출대금의 회수가능성 여부를 수출보험이 책임을 지므로 금융기관은 담보요건 등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수출자금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수출진흥 정책수단으로서의 활용도가 높다. 특히 보조금과 같은 직접적 수출지원수단이 불가능한 WTO 체제에서 간접적 수출지원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는 수출보험은 수출진흥 정책수단으로서 그 활용도가 높다.

4)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www.ksure.or.kr) 재구성

마지막으로 수출보험은 효율적인 인수 및 관리를 기하고 보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해외수입자의 신용상태와 수입국의 정치경제사정에 관한 조사활동을 하고 있다.

〈그림 1〉 수출보험 주된 역할⁵⁾



2) 수출보험의 현황 및 기여도

수출거래 및 기타 대외거래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제위험 중 해상보험 및 기타 통상의 보험으로는 구제하기 곤란한 수출불능, 수출대금회수불능 등의 위험으로부터 수출자를 보호하고, 이들 수출자에게 수출금융을 지원한 금융기관이 입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수출보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1969년 수출보험업무가 개시되었으며 1992년 수출보험사업의 독립전담기관으로의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설립되었다. 이후 2010년 수출보험뿐만 아니라 수입보험제도까지 도입하여 회사 명칭을 'K-sure(한국무역보험공사)'로 변경하여, 경제성장과 수출에 꼭 필요한 주요 해외자원·에너지 및 원자재 등 필수 시설재의 장기적이고 안정적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K-sure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수출보험의 종목은 5개 분야 19개 종목으로 분류⁶⁾할 수 있다. 2010년 무역보험 지원 규모 185조원은 경제위기 이전인

5) 김희국, “금융위기하에서 리스크와 수출보험의 역할”, 한국무역상무학회 동계세미나 논문집, 2009. 12.

6) 자세한 내용은 K-sure 홈페이지(www.ksure.or.kr) 참조

2007년 지원규모 92조원의 2배가 넘는 수준으로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총액의 35%에 해당한다.⁷⁾ 한편 수출보험 인수실적을 보면 92년 1.8조에서 2009년 170조로 약 94배 증가하였으며, 중소기업 지원실적은 92년 0.6조에서 2009년 10월 현재 64.2조로 약 107배 증가하였다.

2011년에도 우리나라가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고 선진경제로 진입할 수 있도록 신흥시장에 대한 무역투자 지원 확대,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기업화 지원강화, 차세대 수출동력산업 육성 등 수출의 성장기반을 확충하는데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신흥시장 진출시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이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부족, 수입자의 신용위험과 수입국의 비상위험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해외 시장에 대한 정보제공과 리스크분석 기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 전용 포괄보험제도’와 ‘중견기업 단체보험’을 도입할 예정이다.⁸⁾

〈그림 2〉 수출보험 지원실적 현황⁹⁾



한편 무역보험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역활동을 하는 기업에 대한 무역보험의 지원을 통해 기업의 수출이 증가하며, 이는 국내 생산증가에 영향을 주며, 생산증가는 고용유발 및 부가가치 유발의 효과를 일으켜 국가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다.

7) 무역보험 지원실적 : ('07년) 92조원 → ('10년) 185조원 → ('11년 계획) 190조원

8) 한국무역보험공사 보도자료, 2011. 1. 25.

9) 김희국, “금융위기하에서 리스크와 수출보험의 역할”, 한국무역상무학회 동계세미나 논문집, 2009. 12.

이러한 무역보험의 유용성을 확인하기 위해 무역보험의 국가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계량적으로 분석¹⁰⁾을 해 본 결과, 무역보험이 우리나라 수출을 유발하는 효과가 2009년 기준으로 총 수출실적의 8.1%¹¹⁾인 37.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무역보험의 수출유발효과 분석 결과를 기초로 산업연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09년 기준 생산유발효과는 152조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25조원, 고용유발효과는 30만명으로 나타났으며, 보험종목별로는 단기수출보험¹²⁾의 수출유발계수는 0.28, 중장기수출보험¹³⁾은 3.54로 나타났다.¹⁴⁾

〈표 1〉 국가경제 기여도 항목별 성과

(단위: 조원, 만명)

기여도 항목	'00년	'05년	'08년	'09년	평균
수출유발 (총 수출액 대비)	11 (5.7%)	20 (6.9%)	54 (11.6%)	38 (8.1%)	20 (7.0%)
부가가치 유발 (GDP대비)	9 (1.4%)	14 (1.6%)	32 (3.2%)	25 (2.3%)	14 (1.7%)
고용유발 (총고용자수 대비)	15 (1.1%)	18 (1.2%)	38 (2.3%)	30 (1.9%)	17 (1.1%)

3. 기존 연구

이장수(2008)는 수출보험을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가능한 우리나라의 수출기업들의 설문조사를 통한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 수출보험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수록 수출보험 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며, 또한 수출기업의

10) 한국무역보험공사 보도자료, 2011. 1. 31.

11) '09년 휴대폰 등 무선통신기기 수출비중 8.5%(310억불)와 비슷한 규모

12) 대금결제기간이 2년 이내인 수출거래로 주로 상품 및 서비스 수출거래 지원

13) 보험기간 2년 이상으로 주로 대형 건설 프로젝트 및 자원개발거래 지원

14) 중장기수출보험의 유발계수가 1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은 단기수출보험의 경우 수출거래의 위험을 헤지(hedge)하는 보험의 성격이 강한 반면, 중장기수출보험은 거래의 위험을 책임지는 기능에 더해서 금융기관의 수출금융 제공을 촉진하는, 즉 프로젝트 소요자금의 일부를 K-sure가 지원함으로써 민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나머지 투자금이 나 차입금 조달을 용이하게 해주는 Deal Maker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리스크회피 경향이 높을수록 수출보험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홍주외 1(2008)은 한국과 일본 종합상사의 리스크관리시스템의 비교연구를 통해 일본의 미쯔시비, 스미모토, 이토추 등의 상사들의 전사적 리스크관리 체제 시스템 구축을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의 종합상사들에서도 다양한 리스크 노출과 경영환경상의 요구에 따라 체계적이고 글로벌 스탠다드를 충족시키는 전사적 리스크 관리의 도입을 제안 하였다.

김재봉(2007)은 해운산업의 높은 리스크관리를 위해 해운기업들에게 전사적 리스크관리를 방안으로 제시하였으며, 개별기업들의 사업의 독특성 및 리스크 관리 필요정도에 따라 적합한 모델의 전사적 리스크관리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이제홍(2007)은 무역절차에 있어 내국신용거래와 무역제도분야 등 수출보험의 미부보영역에 대한 연구를 통해 새로운 수출보험상품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이서영(2004)은 수출보험의 활용률이 증가하기 시작한 1990년 1분기부터 2002년 4분기까지의 자료를 대상으로 벡터자기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여 수출보험 인수액이 수출변동에 미치는 영향은 1.1% 수준으로 분석되어 수출보험은 수출증진에 대략 1.1%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제현(2000)은 수출위험관리 수단으로써 고객만족이론을 활용하여 살펴보고 중소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실증분석 하여, 수출입 기업 간의 거래가 짧을수록 수출보험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수록 수입기업의 정보수집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수록 수출보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석태(2000)는 국내 무역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리스크에 대한 인식과 리스크관리방법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분석을 통해 무역업체들의 낮은 리스크 인식도와 관리방법의 비전문성을 지적하고 효과적인 관리방법의 모색을 주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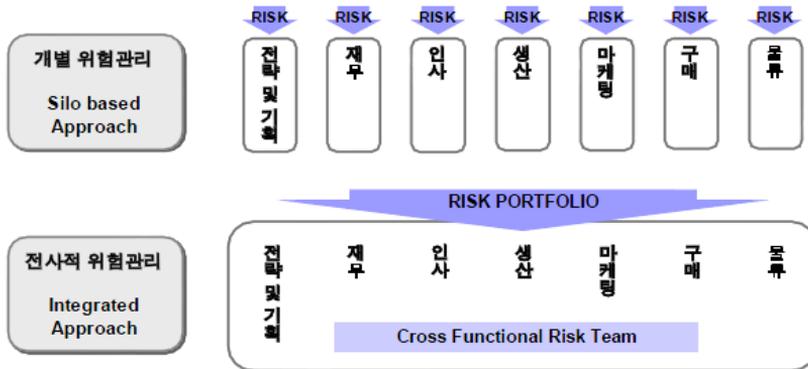
Ⅲ. ERM을 활용한 무역리스크 관리의 필요성

1. ERM

1) ERM의 개념 및 기대효과

전사적 리스크관리(ERM : Enterprise Risk Management)란 기업의 가치를 최대화하기 위해 전사적인 시각에서 여러 가지 위험들을 인식하고, 일정한 허용 한계 내에서 적절하게 관리하며, 기업의 궁극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 실행하는 지속적인 프로세스라고 정의할 수 있다.¹⁵⁾

〈그림 3〉 개별 위험관리와 전사적 리스크관리의 차이



자료 : 김종호, “전사적 위험관리; 개념과 사례”, LG경제연구원, 2004

ERM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로는 기존에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리스크를 새롭게 인식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기존에 알고 있던 리스크를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 전사 관점에서 공유하고 통합함에 따라 개별 위험 간의 상쇄로 전체 위험의 수준이 감소하는 포트폴리오 효과 (Portfolio Effect) 및 자연적인 헤지효과(Natural Hedge Effect)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구성원 및 조직 전체의 위험관리 의식을 제고하여 사업성과의 향

15) 김종호, “전사적 위험관리: 개념과 사례”, LG경제연구원, 2004

상, 내부통제 및 기업지배구조의 강화, 대외적 위험관리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이해관계자들의 신뢰 확보 등을 통해 전사적인 측면에서 리스크에 대한 체계적인 인식과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어 리스크 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된다.

2) ERM의 구성요소와 프로세스

ERM의 구성요소는 학자들 간에 다소 견해가 상이하하며, 또한 모든 기업에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프레임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많이 인용하고 있는 구성요소에 관한 이론으로서 ERM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고 국제적인 실행기준을 만들기 위해 발표한 COSO¹⁶⁾(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s of the Treadway Commission)에서 제안한 ERM 구성요소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ERM의 구성요소는 내부환경 (Internal Environment), 목표설정 (Objective Setting), 위험요인 인식 (Event identification), 리스크 평가(Risk Assessment), 리스크 대응 (Risk Response), 통제 활동 (Control Activity), 정보와 의사소통 (Information & Communication), 모니터링(Monitoring) 등 8개로 분류하고 있다.

ERM의 프로세스는 다음 4단계로 구분하여 진행한다. 첫째, 리스크 인식단계이다. 리스크의 인식을 통해 기업이 미래에 처할 수 있는 모든 리스크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먼저 리스크의 인식단위를 분해하고 범주를 정하여 전사 목표(Objective)의 달성을 저해할 수 있는 잠재적으로 발생 가능한 모든 리스크를 파악한다. 특히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나열하는데 그치지 않고 각 리스크간의 인과관계까지 파악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개별 리스크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각 리스크의 유기적 관계를 입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어떤 리스크 요인이 전사 목표 달성에 가장 애로(Bottleneck)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리스크 평가단계이다. 리스크 인식 단계에서 잠재적으로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모두 찾아낸 후에는 그 중에서 전사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관리해야

16) 경영윤리, 내부통제, 기업지배구조 등의 이슈를 연구하는 미국의 비정부기구이며 경영자 및 이사회, 회계전문가, 규제기관 등을 대상으로 기업 내부감사 및 내부통제에 대한 권고 및 조언을 제공하고 있음

할 리스크를 선정해야 한다. 우선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KFS(Key Factor for Success)를 확인한 후에는 이의 달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 리스크 등의 의견을 수집한다. 또한 해당 리스크가 조직의 목표 달성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의 영향도와 해당리스크의 발생빈도를 고려하여 중점 관리 대상 리스크를 선정한다.

셋째, KRI(Key Risk Indicator)¹⁷⁾의 도출이다. 리스크 평가를 거쳐 중점 관리 대상 리스크를 확정한 후에는, 이 리스크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KRI를 도출하는 작업과 KRI가 높은 리스크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단계가 남아 있다. KRI 도출을 위해서는 중점 관리 대상 리스크가 발생하는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이 필요하기에 이를 위해 세부적인 인과관계를 찾아내야 하며, KRI를 선정하는 원칙은 관리 중요성, 조기 경보 가능성, 측정 가능성 등의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응 방안 수립단계이다. 위기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전략 목표 달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행동을 시작해야 할 때이다. 각각의 평가에 따라 대응 방안 수립으로는 리스크 대응은 위험의 영향을 그대로 수용(위험 감수), 위험에 노출된 사업 영역에서 철수하거나 위험 자산을 처분하는 등 전략적인 의사결정(위험 회피), 경영 및 관리 방식을 개선하여 위험 관리 역량을 강화(위험 감소), 파생 금융 상품 및 보험 상품을 이용하여 위험을 재무적으로 헤지(Hedge) 또는 이전(Transfer)(위험 공유)의 네 가지 방식이 있다.

대응 방안 수립은 리스크 평가 결과에 기초로 하여 발생가능성과 영향도 측면에서, 그리고 전략 목표 달성을 저해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각각의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 조취를 취해야하며, 모니터링을 통한 지속적인 평가도 함께 수행되어야 한다.

2. 무역리스크와 무역보험의 관계

무역활동은 국경을 통과하는 원거리·장시간의 운송, 문화·제도의 차이, 결제

17) 기업이 리스크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를 사전에 측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지표이자 기업 목표 달성을 위한 네비게이터 역할.

통화의 차이, 계약과 인도시점의 시간적 차이 존재, 대금회수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국내거래에 비해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 이러한 높은 리스크로 인해 대기업 무역업체를 중심으로 ERM이 도입되고 있으나, 중소 무역업체의 경우에는 규모 및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무역리스크에 대한 인식과 관리능력들에 있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1) 중소기업의 무역리스크 현황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총 수출비중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중소기업의 직접 수출액과 대기업 납품을 통한 간접수출액을 합한 중소기업의 총 수출비중 추정치는 2003년 53.1%에서 2008년에 38.8%로 하락했는데 직수출이 더 크게 하락¹⁸⁾하였다.

이러한 원인은 다양하지만, 중소기업 수출업체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해 수출업체에서 상당수가 퇴출되는 것도 주된 이유 중 하나이다. 2000년에 연간 수출실적이 100만 달러 미만이었던 24,000여개 기업에 대해 수출실적을 추적한 결과 이들 중 2009년에 수출실적을 유지한 기업은 7,411개로 생존율이 30%로 낮은 수준이며, 이들 기업 중 2009년에 100만 달러 이상 수출을 기록하여 2000년에 비해 수출실적이 늘어난 기업은 1,900여개로 그 비중이 7.8%에 불과하다.¹⁹⁾

따라서 지속적인 무역확대를 위해서라도 중소기업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법 중에서 본고에서는 무역절차 전반에 걸친 전사적이고 통합적인 무역리스크관리를 제안한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의 무역리스크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중소기업의 무역리스크 인식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선행연구가 없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애로사항을 조사한 최근의 연구를 중심으로 하여 무역리스크 인식정도와 대응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중소기업에 있어서 애로사항은 자체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는 특징으로 인해 다른 의미로 볼 때

18) - 중소기업의 수출(직수출) 비중 : 42.2%(2003년) ⇒ 30.9%(2008년)
 - 중소기업 간접 수출 비중(추정)³⁾ : 10.9%(2003년) ⇒ 7.9%(2008년)

19) 국제무역연구원, 중소기업의 수출비중 하락과 대응전략, Trade Focs 9-61, 2010. 12.

무역리스크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의 환율하락에 따른 수출기업 애로와 대응방안 조사에 따르면, 수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복수응답)로는 ‘원자재가격 안정’(62.5%)이 꼽혔고, 이어서 ‘안정적 환율 운용’(56.9%), ‘통관·수출 관련 행정 절차 간소화’(30.2%), ‘수출금융 지원 강화’(28.2%), ‘해외 전시회 및 마케팅 지원’(18.8%), ‘기업 환 위험관리 지원’(16.9%) 순이었다.²⁰⁾

국제무역연구원의 중소기업의 수출비중 하락과 대응전략 조사에서는 조사대상 중소기업 중 2007~2009년 수출을 중단한 기업의 경우 수출중단 사유로 가장 큰 원인은 마케팅 능력부족(57.5%)이며, 그 다음으로 자금부족(10%)과 원자재 가격급등(7.5%)으로 나타났다.²¹⁾

국제무역연구원의 무역업계가 바라 본 2011년 수출전망 및 과제 조사에선 중소기업들의 신흥시장 진출시 애로사항은 해외신규시장 정보부족(42.6%), 신규수입자 신용위험(33.8%), 수출금융 조달(14.6%), 수입국 정치적 위험(5.5%)으로 조사되었으며, 우리 수출의 위협 요인으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41.3%)」, 「원/달러 환율 하락 및 변동성 확대(30.8%)」, 「수출대상국의 수입수요 증가율 둔화(22.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²²⁾

이상의 조사를 분석해 보면, 기존의 전통적인 무역리스크인 대금회수와 운송리스크는 어느 정도 보험 등을 통해 관리가 되고 있으나, 무역절차상의 다른 부분들 특히 해외시장진출을 위한 해외마케팅, 해외 원자재 조달, 수출물품 확보를 위한 수출금융, 환율변동에 대한 리스크들의 관리에 있어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한편 한국무역보험공사가 2010년에 조사한 환위험 관리실태 조사²³⁾를 보면 낙후된 중소기업의 무역리스크 관리현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²⁴⁾ 응

20) 대한상공회의소, 최근 환율 하락에 따른 수출기업 애로와 대응방안 조사, 보도자료, 2010. 5.

21) 국제무역연구원, 중소기업의 수출비중 하락과 대응전략, Trade Focs 9-61, 2010. 12.

22) 국제무역연구원, 무역업계가 바라 본 2011년 수출전망 및 과제, Trade Focs 10-1, 2011. 1.

23) 한국무역보험공사 보도자료, 2010. 11. 17.

답기업의 51.3%인 245개사가 환위험 관리를 하지 않고 있으며, 이중 32개사는 환위험 관리계획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위험 관리를 못하고 있는 이유(중복응답)로는 전문인력 부족(46.9%), KIKO 사태 등 파생상품 이용 두려움(33.3%), 환해지 기법을 몰라서(26.8%), 비용부담(17.8%)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래 표에서와 같이 환위험 관리 수단으로 환변동보험과 금융기관 선물환이 높게 나타났으며, 수출규모가 클수록 환위험관리 및 선물환 이용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의 환리스크 관리의 허술함을 알 수 있다.

〈표 2〉 수출규모에 따른 선물환 이용응답 (단위: 개사)

수출규모	회사수	환위험관리	선물환이용
U\$10백만 이상	125	90(72.0%)*	53(58.9%)**
U\$10백만 미만	353	143(40.5%)	45(31.5%)

*는 회사수 대비, **는 환위험관리 업체수 대비

2) 중소기업의 무역리스크와 무역보험과의 관계

상술한 여러 리스크들은 거의 대부분 현재 수출보험의 보험종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리스크 인식과 의지만 있다면 해지가 가능한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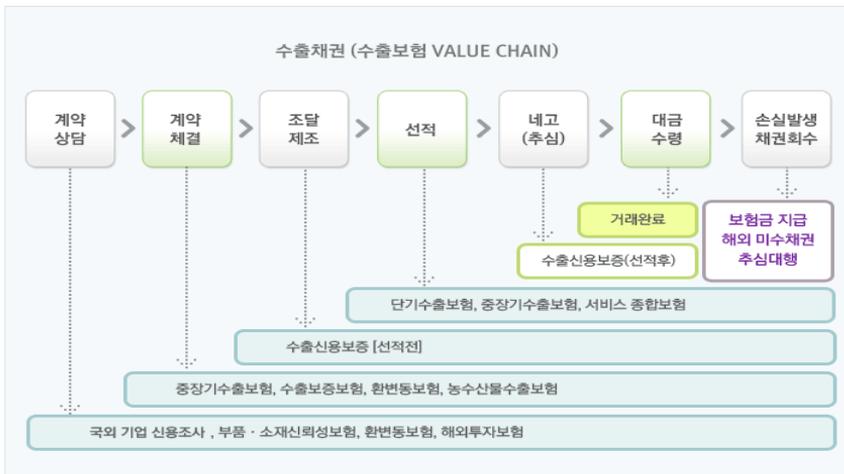
특히 최근 몇 년동안 K-sure는 단순 수출 대금 미회수 위험뿐만 아니라 수출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원자재 구매, 제조부터 수출 후 판매대금을 회수할 때까지 수출 과정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을 제공 및 수입지원 등 무역 관련 종합금융지원기관으로 위상을 확대시키고 있다.

24) 대한상공회의소의 최근 환율 하락에 따른 수출기업 애로와 대응방안 조사에서 환율 하락에 대한 대처 방안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수출기업 75.4%가 '없다'고 답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이 같은 응답을 한 기업이 무려 81.7%에 달해 중소기업이 환리스크관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지원제도별 수출보험 종목25)

지원제도	수출보험 종목
대금미회수 위험담보 제도	단기수출보험(일반), 농수산물수출보험, 중장기수출보험(선적전), 중장기수출보험(공급자 신용), 해외투자보험(주식, 대출금, 보증, 부동산),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 해외공사보험
수출금융지원 제도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선적후, Nego), 중장기수출(구매자 신용), 해외사업금융보험, 수출보증보험, 이자율변동보험
환리스크관리	환변동보험(선물환방식, 입찰방식)
기타	신뢰성보험, 지식서비스수출보험, 수입자 신용조사 서비스, 해외 채권추심대행서비스

〈그림 4〉 수출단계별 수출보험26)



전술했듯이 1992년에 비해 107배 가까이 중소기업의 수출보험실적(이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수출신용보증(선적전)에 편중되는 경향이 강하며 주력상품인 단기수출보험의 이용률은 정체 수준이다. 이러한 중소

25) 자료 :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www.ksure.or.kr)

26) 자료 :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www.ksure.or.kr)

기업의 수출보험 이용의 주된 기피이유는 복잡한 수출보험 가입절차, 수출보험 가입 후 복잡한 수출통지 절차, 과도한 보험료로 조사되고 있다.

〈표 4〉 수출보험 이용 중소기업 현황

구 분	2003	2004	2005	2006
전체 중소기업	31,524	30,645	28,542	26,268
수출보험 이용업체	4,353	4,799	5,142	5,622
단기수출보험 이용업체	2,099	2,034	1,778	1,682
신용보증(선적전) 이용업체	2,520	2,914	3,254	3,692
중소기업 수출보험이용률	13.8%	15.7%	18.0%	21.4%
단기수출보험 이용률	6.7%	6.6%	6.2%	6.4%

자료 : 한국수출보험공사, 수출보험 비상경영계획, 2009.

한편 2000년대 이후 지속적인 신상품 출시로 인해 수출업체 이용 보험종목이 다변화²⁷⁾됨에 따라 수출업체는 다양한 리스크관리를 위해 이용종목을 수출 신용보증(선적전)에서 다종목, 복수종목 활용으로 다변화되는 추세이다.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이용업체를 분석한 결과, 2005년 타종목 활용도는 전체 업체 기준 9%였으나, 2007년에는 12.9%를 증가하였다. 유효계약액 기준으로 보면 업체수 비중에 비해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2005년 17.1%에서 2007년 19.4%로 증가하였다.

〈표 5〉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이용업체의 타종목 활용도 추이
(단위 : 개, 억원)

구분	2005		2006		2007	
	업체 수	유효 계약액	업체 수	유효 계약액	업체 수	유효 계약액
선적전만 이용(A)	3,525	7,893	4,053	8,431	3,817	7,775
선적전 + 1개종목(B)	322	1,385	377	1,428	518	1,683

27) 수출자리스크 담보 종목 현황

- 수출신용보증 : 선적전, 선적후, 제작자금, 네고보증
- 단기수출보험, 해외투자보험, 수출보증보험, 환변동보험, 원자재가격 변동보험

선적전 + 2개종목(B)	27	246	38	238	45	184
계(D)	3,874	9,524	4,468	10,097	4,380	9,642
타종목 활용도 (B+C)/(D)	9.0%	17.1%	9.3%	16.5%	12.9%	19.4%

자료 : 한국수출보험공사, 수출보험 비상경영계획, 2009.

표에서와 같이 수출보험을 활용하는 기업들은 기존에는 보통 하나의 보험종목만 활용하였으나, 무역리스크의 다양화로 인해 다수의 보험종목에 가입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우 무역리스크 관리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보험종목과 자신의 무역리스크를 매치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개별 무역리스크를 관리하는 현재의 수출보험제도는 중소기업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위해서라도 무역절차 전체를 통합관리하는 포괄보험이 필요할 것이다.

IV. K-sure를 통한 중소수출기업의 무역리스크 관리방안

1. 무역리스크의 ERM 적용

최근 환율, 금리 등 금융시장의 급격한 리스크의 증가, 글로벌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의 증가, 전통적인 리스크관리 방식의 한계 인식,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대한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하여 전사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리스크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다.

수출기업의 경우 직면하는 리스크의 특징은 종류가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만큼 수출기업이 관리해야 할 리스크의 범위와 양도 많아진다. 대부분의 무역리스크들은 수출기업에 치명적인 위협을 수반하여 기업의 경영활동에 중대한 손실을 입힐 수도 있다. 하지만 수출 시 발생하는 리스크들은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고 기업 자체적으로 이러한 리스크들을 모두 관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수출기업들도 전사적 리스크 관리의 의미와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각 수출기업의 상황에 적합한 최적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K-sure에서 제공하는 보험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지만 보험 상품이 산재됨에 따라 현실적으로 수출기업들이 모든 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개별적인 리스크 관리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 리스크를 개별적이고 부분적으로 관리하는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리스크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다.

무역리스크의 전사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의 관리를 통해 수출기업들은 사후 대응은 물론 사전 예방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전사적 리스크관리의 도입으로 전략과 리스크의 연계성 강화, 사고와 손실의 최소화 등을 통해 수출기업의 가치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중복되는 리스크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자본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수출기업의 리스크 통제 기능도 개선시킬 수 있다.

무역리스크는 전사적인 리스크관리는 수출위험의 인식, 수출위험의 평가, 수출위험관리수단의 선택, 계획의 실행과 같은 프로세스를 거쳐 수행된다.

수출위험의 인식은 수출활동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출기업의 생존에 관련된 모든 잠재적 수출 위험의 근원을 정확히 규명하고 수출위험의 발생결과를 측정하여 관리위험을 선정하는 단계이다.

수출위험의 평가는 상품, 국가 등의 리스크 인식을 통해 KFS(Key Factor for Success)를 도출하고 그에 따른 KRI(Key Risk Indicator)를 선정하여 리스크별 관리 방안을 수립한다.

수출위험관리수단의 선택으로는 도출된 리스크들에 대한 관리정책의 수립과 리스크를 전략적으로 관리, 제어, 이전할 수 있는 수단을 선택한다. 수출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수출기업(대기업)은 수출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출위험을 사전에 발견하여 적절한 관리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수출기업은 수출위험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수출위험에 대한 지식과 수출위험을 사전에 발견할 수 있는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체계의 확립은 기업의 입장에서 관리하기 보다는 K-sure의 포괄적이고 맞춤형 리스크관리제도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2. K-sure를 활용한 무역리스크의 ERM 구축

현재 대부분의 무역계약은 구매자파위가 강한 Buyer's market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출자의 위험은 그만큼 커지며, 독립적으로 관리될 수 없는 상호 의존적인 리스크의 속성 때문에 개별적인 무역리스크 관리체계보다는 무역절차 전체의 리스크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리스크관리 주체에 있어서는 개별 기업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지만,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한해서라도 K-sure가 중심이 되어 리스크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시스템 개요

ERM은 기존에 알고있던 리스크에 대해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리스크관리방법(silo방식)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전사적인 시각에서 여러 가지 리스크를 공유하고 통합하여 개별 위험간의 상쇄로 전체 위험의 수준을 감소시키는 리스크관리방법이다.

현재 ERM은 리스크의 개별적 관리가 아닌 기업전체 수준에서 모든 리스크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개별기업의 리스크관리수단으로써 그 효율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본고에서 논의하는 개별기업이라 할 수 있는 K-sure를 통한 다수 중소기업의 무역리스크의 통합관리라는 목적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이는 다수의 중소기업이 목표로 한 경영전략, 재무구조, 수출제품별/국가별 상이한 리스크 등을 K-sure가 모두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개별기업의 ERM 확립보다는 무역절차별 리스크의 통합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 시스템의 프로세스 및 구성원의 역할

시스템의 프로세스는 개별 중소수출기업의 무역절차별 리스크를 K-sure의 가칭 TTRMS(Total Trade Risk Management Service)를 통해 접수를 받아서, 이를 매뉴얼화 되어있는 Risk Check List를 통해 KRI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핵심 리스크에 있어서는 K-sure의 수출보험 부보와 연

계된 무역유관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 Consulting Group으로 연결하여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TTRMS 가입만으로 개별기업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수출과 관련된 모든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본 시스템은 기존의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운영하였던 TTS 시스템²⁸⁾을 외연적으로 보다 확대하고 무역리스크의 통합관리 측면을 보강한 시스템으로써 운영에 실패했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ERM의 보편화와 전자무역 기반 확충 등으로 인해 시스템 구축의 성공 가능성은 한층 높다고 사료된다.

시스템 구성원의 각각의 역할을 살펴보면, 우선 K-sure의 경우 무역리스크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여야 한다. 즉 전반적인 시스템의 구축과 리스크 평가 및 대응방안 제시를 통해 무역절차와 관련된 리스크를 인수하는데 개별기업의 리스크관리 능력에 따라 개별 수출보험 부보와 중요한 리스크만을 복수의 개별 수출보험을 통한 부보, 그리고 무역절차 전체의 리스크를 통합하여 하나의 수출보험으로 부보한다. 그 후 K-sure의 업무영역과 상이한 기업의 재무/회계, 해외마케팅 관련 지원, 또는 업무가 중복되는 수출금융지원 등의 업무를 시스템에 연계된 무역유관 공공기업 및 민간부문으로 연결하여 해당 업무의 추진 또는 컨설팅의 제공을 개별기업이 받을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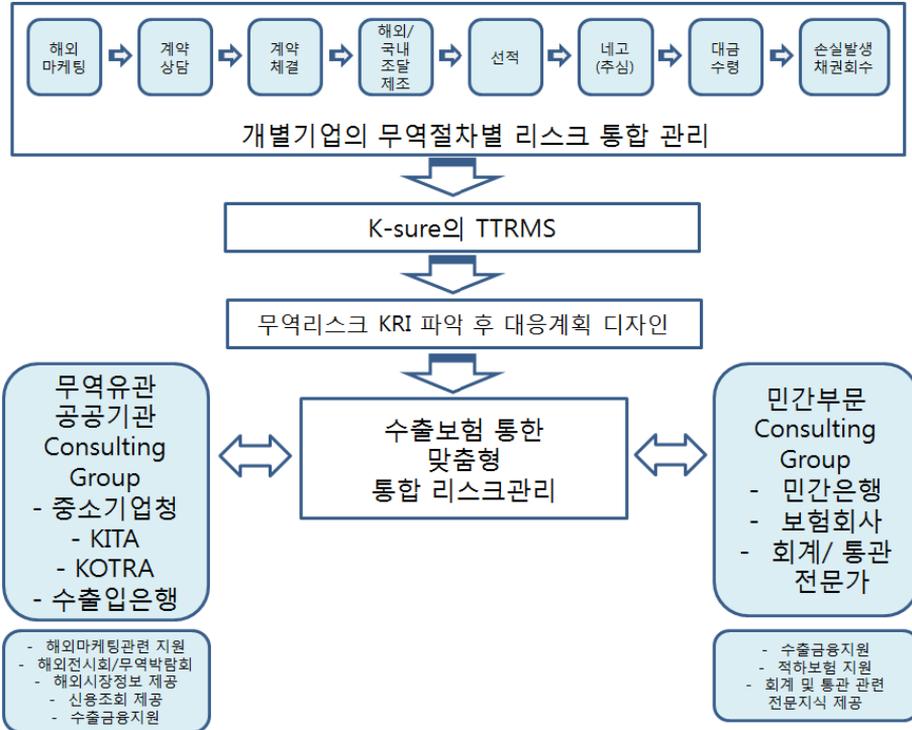
다음으로 중소기업청(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관련 지원), KITA(해외마케팅관련 지원 및 바이어 소개, 기타 무역관련 지원), KOTRA(해외마케팅관련 지원 및 해외시장정보 제공), 수출입은행(수출금융 지원) 등의 무역유관 공공기관들의 경우 K-sure의 요청에 의해 TTRMS 회원에게 각 공사가 담당하는 무역지원제도를 제공 및 컨설팅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민간부문의 경우 무역과 연관된 민간은행(수출금융 및 대금결제), 보험회사(적하보험), 회계 및 통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수출보험이

28) 실제로 K-sure는 지난 2004년부터 기존의 수출종합지원시스템인 TTS(Total Trade Service)을 개편, 기존 수출보험 서비스 이외에 수출물류 비용 할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개편된 TTS는 수출보험 이외에 ◇금융, 물류, 세무, 회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회원 기업들은 각종 수출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무료 회원가입과 회원 업체의 수출 물류비용 15% 할인, 환전수수료 50% 할인, 선적서류 작성 시 발생하는 은행 수수료 20% 할인 등의 다양한 혜택을 부여했다. 또한 관세통관법인 법무법인 경영컨설팅사 등과도 제휴 관계를 통해 세무상담 및 무역관련 자료를 무상으로 제공받으며 수출 관련 각종 상담과 교육 서비스도 지원하였다. 그러나 홍보부족과 원활한 시스템의 부재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유지가 되지 못하여 현재는 없어진 제도이다.

담당하지 않는 무역리스크에 대한 서비스와 컨설팅을 지원한다.

〈그림 5〉 K-sure를 활용한 중소수출기업의 ERM 체계도



3) 기대효과

K-sure의 운영기금은 국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다양한 보험을 개발하고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 때문에 은행과 보험사들과의 협약을 통해 수출기업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K-sure는 비용측면에서 부담을 덜 수 있고, 수출기업은 K-sure를 통해 자신에게 알맞은 서비스를 손쉽게 제공 받을 수 있다. 국내시장이 완전하게 개방되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은행과 보험사들 역시 수익창출을 위한 돌파구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K-sure와의 협약을 통해 박리다매 전략을 이용하여 이윤을 늘릴 수 있다.

우선 수출기업들에게는 전사적 리스크 관리를 통해 리스크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갖게 되고 자신의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위험들을 인식하므로 회사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리스크관리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이 때 각각의 리스크를 개별로 관리하기위해 헤지 수단을 사용한다면 리스크의 속성상 헤지 수단이 커버해주는 범위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발생되므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리스크 인식에 사각지대가 생길 가능성도 있기에 리스크 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러나 K-sure가 제공하는 맞춤형 리스크 관리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면 불필요한 시간적, 금전적 비용을 줄일 수 있고 ERM의 목적에 따라 위험에 대한 사전 예측과 사후 관리를 통해 기업의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 계속 경영이 가능하다.

또한 현재 수출업무를 하고 있는 기업들 이외에 수출을 희망하나 인적자원과 정보부족으로 수출을 할 수 없던 내수기업들도 비교적 안전하고 손쉽게 수출을 할 수 있다. 수출 불안요인이 줄어들고 예측가능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보다 다양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수출증진을 통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으로서 K-sure의 비전달성과 이미지 또한 향상될 것이다.

그리고 K-sure는 전사적 리스크관리 서비스를 위한 부서를 운영하면서 수출기업들과 보다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과의 소통이 원활하여 수출현장에서의 기업 상황과 문제점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기업들에게 시의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단기적으로 수출기업들 뿐만 아니라 K-sure 역시 리스크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축적된 데이터와 경험 및 학습을 통해 구성원들의 리스크관리 능력을 제고하여 리스크관리 전문가 양성을 가능하게 해준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수출기업의 무역리스크 절감 방안으로서 현재 세계적인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는 전사적 리스크관리(ERM)를 제안하고, 특히 중소수출기업의 경우 낮은 리스크 인식과 전문성 결여로 인해 사실상 자체적인 전사적 리스크관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K-sure를 활용하여 중소수출기업의 무역절차에

있어서의 무역리스크 관리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스템의 구축은 단기간에 구축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출보험을 통한 수출확대라는 목적하에 중장기적인 목표로서 접근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향후 과제로서 보험상품화를 위한 보험요율 및 위험요인과 K-sure의 수치상등에 관한 실증적 분석이 연구되어야 하며, 무역관련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의 연계를 위해 K-sure를 중심으로 한 관련 기업의 T/F팀 구성을 통해 상술한 시스템 구축의 타당성 및 유용성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단기적으로 중소수출기업의 무역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서 미시적 접근방안인 중소 및 중견기업의 지원확대와 거시적 접근방안인 K-sure의 역량강화를 간략히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중소 및 중견기업의 지원확대를 위해 복잡한 수출보험 가입절차를 간소화하고, 중소기업의 규모에 따른 높은 보험료를 낮추기 위하여 중소기업 전용 단체포괄보험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개별 수출보험종목을 중소기업의 무역리스크와 보험수요를 고려하여 복수의 보험종목이 결합된 보험상품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무역리스크를 관리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중소기업을 위해 무역절차 전체의 리스크를 부보할 수 있는 수출통합보험의 개발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K-sure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수출보험의 리스크 총량관리체계 구축과 상시적 운영리스크 관리방식의 고도화 및 재보험과 공동보험의 활용 확대 및 ECA간 협력강화를 통한 체계적이고 과학적 리스크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에서 제공하는 한정된 제원으로 운영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금 건전화를 위해 채권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아웃소싱 활용 등 채권 회수 노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효원, 한국의 수출보험제도 활용증대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2005.
- 국제무역연구원, “중소기업의 수출비중 하락과 대응전략”, Trade Focs 9-61, 2010. 12.
- 국제무역연구원, “무역업계가 바라 본 2011년 수출전망 및 과제”, Trade Focs 10-1, 2011. 1.
- 김대희, “무역보험으로의 전환과 법적 쟁점에 관한 소고”, 한국수출보험 학회지, 2009.
- 김석태, “국내 수출입업체의 리스크관리에 관한 연구”, 경제경영논총 24-2, 2000.
- 김재봉, “해운산업의 전사적 리스크관리에 관한 연구”, 국제해양문제연구, 2007.
- 김종호, “전사적위험관리: 개념과 사례”, LG경제연구원, 2004.
- 김희국, “금융위기하에서 리스크와 수출보험의 역할”, 한국무역상무학회 동계 세미나 논문집, 2009. 12.
- 이서영, 우리나라 수출보험이 수출에 미치는 효과분석,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2004.
- 이장수, 국제통상 환경의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수출보험 실태와 활용증대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2008.
- 이제현, 한국기업의 수출위험관리와 수출보험활용에 관한 실증연구, 박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2000.
- 이제홍, “대외무역법상의 무역거래 리스크 개발에 따른 수출보험상품 적용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22-2, 2007. 6.
- 장동한, “통합 리스크관리의 중요성과 보험업계의 대응 방안”, 위험과 보험, Korean Re, Winter 2007.
- 장동한, “무역비즈니스의 전사적 리스크관리와 수출보험의 역할”, 한국무역상무학회 동계세미나 논문집, 2009. 12.
- 정홍주, “무역업의 리스크관리 사례연구”, 무역학회지 33-2, 2008. 4.

- 한국수출보험공사, 수출보험 비상경영계획, 2009.
- 관세청 보도자료, “2010년 수출입 동향”, 2011. 1.
-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 최근 환율 하락에 따른 수출기업 애로와 대응방안 조사, 2010. 5.
- 한국무역보험공사 보도자료, 2010. 11. 17.
- 한국무역보험공사 보도자료, 2011. 1. 25.
- 한국무역보험공사 보도자료, 2011. 1. 31.
- Baranoff, Etti, Mapping Evolution of Risk Management, Contingencies, July/Aug. 2004.
- Doherty, Neil, Integrated Risk Management, McGraw Hill, 2000.
- Lam, James, Enterprise Risk Management, Wiley, 2003.

ABSTRACT

A Study on the Role of Export Insurance for Enterprise Risk Management of International Trade Business

Chang, Dong Han
Yu, Kwang Hyun

With the fast growing of international trade and ever-changing trade environment Korea is facing more risks in international trade and they are getting more diverse and happen more frequent with high severity.

Big firms of international trade are ready and treat the risks quite well, but small and medium size firms have hard time to manage the risks due to their poor understanding, not much capital to spend, and weak skills of risk management.

Holding significant size of international trade of Korea, the small and medium size firms need systematic and integrated risk management and the K-sure(former Korea Export Insurance) can mak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help them manage risks in international trade business.

This study is proposing the adoption of ERM(Enterprise Risk Management) for international trade business of Korea. Especially for small and medium size firms of international trade, the K-sure may set up integrated risk management system to help them and promote the export growth, which is a great mission of K-sure.

Key Words : Risks in International Trade, Export Insurance,
ERM(Enterprise Risk Management)